

# 20세기 전반 한인들의 프랑스로 인도차이나 이주: 어느 전씨(田氏)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그동안 재외 동포의 역사는 해외의 독립운동과 연계된 민족 운동사의 관점에서 정리되었거나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제는 한국의 민족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해외 동포의 역사를 독립적인 이민 자체의 역사로 인식하여 있었던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 한인들의 프랑스로 인도차이나 이주 상황을 전성화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의 차남 전영상의 회고록을 통해 개인의 생애사와 가족사를 재구성하여 20세기 전반 인도차이나에 이주한 한인들의 정착 과정과 현지의 삶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한인 이주의 기원과 성격을 동북아와 동남아를 관통(貫通)하는 지역사적(regional history) 관점에서 추적하여 이민의 배경이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현지 이민 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상을 이주 지역의 구체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며 접근해 본다.

주제어 베트남, 인도차이나, 이주, 전성화, 전영상

## I. 머리말

1975년 4월 30일에 사이공(Sài Gòn)이 함락되자, 공산 정권에 쫓겨 5월 13일 상오 8시 10분 부산에 입항한 난민 전영상(田英祥, 50세)은 베트남공화국(Việt Nam Cộng Hòa, 남베트남, 1955~1975) 체류 시절에 교민회장을 역임했었다. 그는 1954년 7월의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체결로 ‘월남(越南)’하기 이전에, 프랑스로 인도차이나(L'Indochine Française, 1887~1954)와 베트남민주공화국(Việt Nam Dân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 sansfin@snu.ac.kr

Chú Cộng Hòa, 북베트남, 1945~1976)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부친 전성화(田成和)의 인삼 장사를 돕기도 했다. 그리고 전영상의 가족이 인도차이나의 하이퐁(Hải Phòng)을 거쳐 하노이(Hà Nội)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평안북도에서 봉천(奉天)의 안동현(安東縣)으로, 안동현에서 홍콩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장거리 이주의 가족사가 펼쳐져 있었다. 아울러, 잠시 귀국했던 전영상(당시 14세)은 형 전영순(田英淳, 당시 18세)과 함께 부모를 찾아 1937년에 인도차이나로 입국했을 때부터 남베트남이 패망할 때까지 38년 동안 현지에서 거주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경향신문 1975/05/13; 정구중, 1975).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 한인들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주 상황을 전영상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37년 말 당시에 88만 4,000여 명이었던 전 세계 재외 동포의 수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732만 명으로 늘어났다(동아일보 1938/01/13; 외교부, 2021).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민의 역사가 100년을 넘긴 곳들도 많아졌다. 구한말 이후 한반도 이민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86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생계형 이민,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한일 병합으로 더욱 심각해진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려는 도피성 이민, 1945년 해방 이후 1962년 이전까지 전쟁 후유증이 빚어낸 입양, 국제결혼 등 다양한 동기로 유발된 산발적 이민, 그리고 1962년 이후 ‘해외 이민법’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진 공식적 이민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05).

재외 동포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는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한 동포들의 역사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선별하여 자료집으로 정리하면서 각 지역의 동포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주 지역,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 중국과 일본, 유럽 지역 등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동포 사회의 역사를 조망하며 정리하고 있다(김현영 외 편, 2005). 그동안 재외 동포의 역사는 해외의 독립운동과 연계된 민족 운동사의 관점에서 정리되었거나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이만열, 2005, 1-2).

이제는 한국의 민족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해외 동포의 역사를 독립적인 이민 자체의 역사로 인식하여 있었던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민의 배경이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현지 이민 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상을 이주 지역의 구체

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검토하며 지역사적인(regional history)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건너간 한인들의 역사는 독립운동사 차원에서 주로 검토되었을 뿐(김인택·김도형, 2008; Youn, 2018), 여타 지역에 비해 학계의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베트남을 둘러싼 한인 연구도 여전히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연구는 주로 인터뷰와 회고담에 기반하여 1945년 전후 남북 베트남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다루었다(김기태, 2002: 406-418). 그리고 후속 연구는 베트남 북부의 하이 풍에 거주하던 전성화의 이력, 이주 경로, 하노이 생활, 그리고 전영상의 난민 입국 과정 등을 단편적으로 밝혀냈다(안병찬, 2005: 219; 윤대영, 2010: 107-108; 이한우·부이 테 끄영, 2015: 115). 이후에 채수홍(2021)은 20세기 전반의 양상보다는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한인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동남아 지역 중에서도 한인들의 주요한 활동 대상이었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1887~1954)의 사례에 주목하며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전성화 가족 이민사의 여정과 굴곡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의 차남 전영상이 2010년에 간행한 회고록 『길 따라 세월 따라: 한평생 살아온 봉사의 삶』을 통해 개인의 생애사와 가족사를 재구성하여 20세기 전반 인도차이나에 이주한 한인들의 정착 과정과 현지의 삶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한인 이주의 기원과 성격을 동북아와 동남아를 관통(貫通)하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I장에서는 한인들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주 배경과 전씨 가족의 현지 정착 과정을 한반도, 만주, 중국 남부, 동남아 등지의 상황을 고려하며 검토한다. 다음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던 일본의 인도차이나 진주가 식민지 ‘반도인(半島人)’ 전씨 일가의 이민 환경에 미친 영향을 III장에서 규명해 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일본의 패망으로 비롯된 인도차이나의 혼란과 베트남민주공화국 및 프랑스의 갈등 양상이 전씨 가문에 가져온 위기 국면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 II. 한인들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주와 전씨 일가의 정착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인도차이나반도로 건너가게 되었을까? 전통 시대에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던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민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621년(광해군 13년)에 남원 출신의 문인 조위한(趙緯韓)이 지은 소설 『최척전(崔陟傳)』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최척과 옥영(玉英)이 정유재란 전후에 일본, 중국, 안남 등지를 무대로 펼치는 파란만장한 연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장효현, 2006). 이렇게 ‘인문학적 상상력’이 연출해 낸 이야기는 17세기 후반의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다. 1687년 9월에 제주(濟州) 진무(鎭撫) 김대황(金大璜)과 사공 이덕인(李德仁) 등 24명이 제주 목사가 중앙 정부에 바치는 진공마(進貢馬) 세 필을 신고 출항했다가 베트남 중부의 꾸 라오 째(Cù Lao Chàm) 섬으로 표류한 후에 근처의 항구 호이 안(Hôi An)에 머문 지 16개월 만에 서귀포로 귀환했던 경우는 희귀한 사례였을 뿐이다(최병욱, 2001; 허경진·김성은, 2001).

그런데 전통 시대의 이와 같은 ‘상상력’이나 ‘우연한’ 사건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아시아의 해상 교통이 발달하고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1896년 12월 사이공에 들른 윤치호(尹致昊, 1865~1945), 유럽 6개국 특명 전권 공사에 임명된 후 1897년 4월경에 홍콩에서 인근의 통킹만(Gulf of Tonkin)을 경유한 민영환(閔泳煥, 1861~1905), 1901년 3월에 대한주법공사관참사관(大韓駐法公使館參書官)에 임명된 후 지부(芝罘), 상해, 홍콩 등지를 거쳐 윤치호처럼 사이공을 방문한 이하영(李夏榮, 1858~1919), 비슷한 시기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상해를 거쳐 홍콩에서 베트남에 머무른 후 1902년 여름에 귀국한 한말 강원도 지역의 항일 의병장 민용호(閔龍鎬, 1869~192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베트남의 하이 풍(Hải Phòng)-하노이(Hà Nội)-라오 까이(Lào Cai) 철도 노선은 운남의 군사 학교에 입학하는 중간 경유지였다(윤대영, 2010: 101-102; 윤대영 외, 2013: 100-106).

아울러, 192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남양(南洋)의 부원(富原)을 개발하려던 계획과 일본의 사업가들이 남양의 재원(財源)을 탐사하려던 움직임, 그리고 일본 정

부가 장려하던 남양 이주 정책 등이 국내 인사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이들 중에는 남양을 직접 시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중국 남부를 거쳐 동남아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성완생, 1923a).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들의 본격적인 이주 현상이 우선 중국 남부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목포 출신 김상률(金相律)은 1920년에 도쿄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발했다. 그는 경성(京城)을 떠나서 만주를 거쳐 북경에 갔다가 울포선(律浦線) 열차를 타고 남경(南京)에 도착한 후에 광둥(廣東)으로 갔다. 김상률은 여기에서 4년간 머물면서 손문(孫文)이 주도하던 혁명 운동을 목도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유럽행을 단념하고 실업 방면에 투신하게 되었다(김상률, 1940; 성완생, 1923c).<sup>1</sup> 서울 출신의 이학수(李學洙, 당시 27세)는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를 졸업한 후 경성상업은행(京城商業銀行)에서 근무하다가 해외 무역에 종사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고, 이어서 곧 퇴직하고 고국을 떠나 1923년 11월 23일에 남중국 복건성(福建省)의 산두항(汕頭港)에 도착했다(성완생, 1923b; 성완생, 1923c). 그리고 1924년 1월 당시에는 일본 등지에서 탄광 노동을 하던 “정군(鄭君)”이 홍콩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 노동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례도 보인다(성완생, 1924).

한인들의 중국 남부 이주는 이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도 확장되었던 듯하다. 남중국에서 활동하던 한인들 중에서 김상률은 1923년 12월 홍콩에서 사이공으로 가서 기계무역상을 개업했다가 이후에 약종무역(藥種貿易) 허가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윤대영 외, 2013: 108-109). 그리고 한국인 124명이 1946년 4월 21일에 인도차이나의 하이 풍을 출발하여 일본의 하카타(博多)를 거쳐서 1946년 5월 5일에 부산에 입항했을 때, 전남 담양 출신으로 인솔자였던 채위병(蔡位秉, 당시 28세)은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정계 동향에 관하여,

이번에 귀환한 동포 가운데 군인이 31명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그곳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아직 월국(베트남)에는 우리 동포 10여 명이 남아 있는데, 이

<sup>1</sup> 김상률은 1923년 말 당시 복건성(福建省) 산두(汕頭)의 대만은행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사이공에서 무역상으로 정착했다.

들은 20~30년 전부터 당지(當地)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분들이다.

라고 말했다(서울신문 1946/05/07). 이 증언에 의하면, 채위병이 베트남에서 귀국하기 20~30년 전인 1910년대 후반부터 10명 이상이 인도차이나로 이주하여 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910년대 후반에 인도차이나로 건너간 한인들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주의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양시동동(楊市東洞) 8번지에 살던 정항준(鄭亢俊, 41)의 아내 이애준(李愛俊, 25)은 1925년 5월 21일 오후 2시경에 양젓물을 먹고 생명이 위독해졌다. 이 여인이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자살하려던 배경을 살펴보면, 이애준의 애절한 인생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9살 때에 정항준과 결혼했다. 그런데 극빈한 생활을 벗어나려던 남편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인삼 장사로 돈을 많이 벌던 행상인들처럼 10여 년 전에 집을 떠나 “멀고 먼 다른 나라 안남(安南)이란 곳”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애준은 항상 세상을 비판하던 중에 양젓물을 마시고 고생하다가, 결국 28일에 세상을 떠났다(조선일보 1925/05/27; 동아일보 1925/06/04). 생계형 인삼 행상이 초래한 부부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이러한 슬픈 일화와 관련하여,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인도차이나 한인 이주의 전반적인 양상과 사회경제적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6년 4월부터 1927년 1월까지 열 달 동안 의주(義州) 읍내에 사는 청년 남녀들이 의주 경찰서(警察署)에서 여권을 받아 해외로 “표랑의 길”을 떠난 수효가 82명이었고, 1927년 2월 초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외 이주하려는 수가 32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모두 30세 미만의 청년들이었는데, 미국령 필리핀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영국령 홍콩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등지였다. 이 청년들은 차비 외에 얼마 되지 않는 자금으로 인삼 행상이나 각종 노동을 목적으로 고향 산천과 부모 친척을 떠났다. 점점 피폐해 가는 농촌에서 수입이 없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은 부득이 얼마 안 되는 가산을 정리해 그렇게 “유랑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윤대영, 2010: 105-106; 윤대영 외, 2013: 54; 조선일보 1927/02/18).

1933년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인도차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4건의 여권이 발부된 조선인들은 모두 평안북도 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朝鮮總督府 編, 1935: 65-66; 윤대영, 2010: 107). 이후 1935년 6월의 통계와 10월의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세계 28개국에 산재한 한인의 총수가 278만 3,254명이었는데, 인도차이나에는 54명(남 46명, 여 8명)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40/01/03; 한민 1940/04/25).<sup>2</sup> 마찬가지로, 1937년 말과 1938년 당시 조선 총독부의 외무부가 집계한 재외 한인의 총수는 220여 만이었는데, 그중 54인이 역시 인도차이나에 거주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38/01/13; 국민보 1938/02/09).<sup>3</sup>

그러면 전씨 일가의 경우에는 어떠한 배경에서 인도차이나 이주가 이루어졌을까? 역시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 전성화의 차남 전영상은 1966년 당시에 선친이 고향을 떠난 시점이 기미년(己未年) 만세 운동 직후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처자를 두고 만주로 망명한 부친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탈출로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성화는 독립운동가들의 망명을 도운 일로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구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이석열, 1966; 전영상, 2010: 11).

석방 이후에 가족과 재회한 듯한 전성화는 아내와 함께 만주 봉천의 안동현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면서도 계속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가 이 일이 다시 발각되자, 그는 1922년 말경에 집을 떠나 활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전성화의 아내는 정미소를 정리한 후에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와 형제들이 살고 있던 평북 용천군 양서면으로 이사하여 가장이 없는 가운데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가며 외롭고 힘들게 생활했다(전영상, 2010: 11, 16, 147; 정구중, 1975: 218).<sup>4</sup>

<sup>2</sup> 기타 대만에 1,604명, 필리핀에 42명, 홍콩에 22명, 말레이반도에 18명, 인도에 15명, 마카오(澳門)에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sup>3</sup> 인도차이나 이외에도, 만주 850,360명, 관동의 여순(旅順) 4,025명, 러시아 3,778명, 중국 2,480명, 남양 군도 548명, 쿠바 389명, 북미 합중국 308명, 영국 22명, 필리핀 18명, 독일 17명, 멕시코 15명, 인도 13명, 홍콩 7명, 말레이시아 5명, 캐나다 4명, 네덜란드 3명, 마카오 3명, 프랑스 3명, 아르헨티나 2명 등이었다(윤대영, 2010: 107; 윤대영 외, 2013: 106-107).

<sup>4</sup> 전성화의 아내는 대지주 최관식(崔觀植)의 장녀로 자랐다고 한다.

1922년 3월 12일 당시에 이미 전성화는 봉천 안동현 사변통(四番通) 교회당 내에서 창립된 ‘안동현 기독교 청년회’의 부회장 겸 문예부장이었다(동아일보 1922/03/27). 그리고 그는 1924년 5월 말부터 ‘안동현 조선인 중개 조합’의 서기로 활동하게 되었고, 1925년 4월 15일에는 조선 언론계에 종사하던 7백여 명 기자의 성대한 모임이었던 ‘전조선 기자 대회’(장소: 서울, 천도교 기념관)에 『조선일보』 안동 지국 기자의 신분으로 참가하기도 했다(시대일보 1924/05/31; 조선일보 1925/04/14·15; 동아일보 1925/04/15; 京城鐘路警察署長, 1925: 80). 또한 같은 해 8월 22일에 ‘안동 유치 기성회(安東幼稚期成會)’가 주최하고, ‘안동 기독교 청년회’, 『조선일보』 안동 지국의 후원으로 개최된 음악 강연회에 참가해 의연금을 내는 등 교포 사회를 위해 활발한 사회 활동도 벌였다(조선일보 1925/08/25; 동아일보 1925/08/26; 시대일보 1925/08/26).

이후에 전성화의 행적은 광둥성(廣東省) 남부에서 발견된다. 그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정치적 압박을 피해 홍콩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런데 1925년 후반의 어느 날에 그가 현지에서 어떤 한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소식이 가족들에게까지 갑자기 들려왔다. 이 소식을 접한 아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와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선편으로 홍콩에 도착하여 전성화와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때 장남 전영순의 나이는 6살, 차남 전영상은 2살<sup>5</sup>이었다. 아내는 홍콩에 도착한 날부터 남편뿐만 아니라 동거녀와도 매일 싸우기 시작했다. 가정불화가 지속되어 고통스러웠던 전성화는 그 여성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전성화가 홍콩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 중 큰아이를 맡았고, 그녀가 젖먹이를 데리고 떠났다(전영상, 2010: 10, 12-13). ‘일상의 일탈’과 이로 인한 배우자의 과감한 결단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이주 환경을 조성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일상의 일탈’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멀리서 온 원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성화가 홍콩에서 당시 한인들에게 인기 사업이었던 인삼 판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독립운동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sup>5</sup> 전영상은 1923년 7월 1일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태어난 고향은 평북 삭주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전영상, 2010: 10, 147; 정구중, 1975: 218).



경제 활동으로 돌아서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평양 전쟁 이전에 조선 총독부의 전매국은 인삼 재배자들이 수삼(水蔘) 약 15~16만 근을 내게 하여 홍삼 6만여 근을 생산해 왔다. 그중 3분의 2가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나머지는 동남아(南洋) 각지에서 소비되었다. 동남아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지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安南)였고, 다음은 말레이시아(馬來), 시암(暹羅)이었다. 인도차이나의 관세가 가장 낮았으며, 현지인들이 홍삼을 비교적 애용했기 때문이다(정원국, 1948). 그래서인지 전성화도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안 고국에서 홍삼 및 인삼 제품을 구입해서 인도차이나 각지를 돌며 대지주나 단골들에게 판매했는데, 매년 3회 정도 홍콩과 인도차이나를 왕래했다. 단골들이 다른 지주들을 소개하면서 고정 고객과 주문량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많아졌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전영상, 2010: 14).

그러면, 전성화의 인도차이나 영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이 풍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1931년부터 인도차이나 프랑스 극동 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1936년 5월 27일에 잠시 귀국한 김영건(金永健, 1910~?)에 의하면,

내가 있던 하노이(河內)와 그 근처 하이 풍(海防)이라는 두 곳에 조선 동포가 20명 가량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집을 지니고 살림을 사는 이는 두 집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모두 인삼 행상인데, 벌써 그곳에 가서 있는 지 10년이나 되는 이도 있지만, 아직 성공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근근이 호구는 되어 가는 형편입니다. 살림을 살고 있는 집 자녀들은 안남 사람의 소학교에 입학하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시 하노이와 하이 풍의 한인 상황을 전하고 있다(조선일보 1936/05/30).<sup>6</sup>

하이 풍에는 늦어도 1924년부터 이지홍(李枝弘)이라는 한인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 항구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던 일본인들이 일종의 '살롱'으로 생각하던 석산여관(石山旅館, 혹은 石山「ホテル」호텔)은 항구에서 자국 손님을 맞이한 후 통관 수속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 대

<sup>6</sup> 김영건의 이력에 대해서는 Youn(2016) 참조.

표적인 고객이었다. 이지홍은 1924~1931년 당시에 이 여관의 종업원이었는데, 하이 팡에 오던 한인 인삼 상인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다(亞細亞局長, 1924: 12-13; 加納寛, 2019: 29, 34).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콩과 인도차이나를 오가던 전성화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도차이나로 인삼을 판매하여 시장을 확장해 나간 전성화는 현지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홍콩과 정기 연락선이 왕래하면서 확고 고객인 많이 살던 인도차이나 북부의 대표적인 양항(良港) 하이 팡에 이주하기로 결정했고, 1933년에는 현지에서 인삼 판매 가게 고려물산상회(高麗物産商會)도 열었다. 곧이어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3·1 운동에 참여한 후 망명하여 중국인 부인과 사는 이지홍이 일본 무역회사 대남공사(大南公司)<sup>7</sup>의 하이 팡 지점장으로 비슷한 시기에 왔다.”라고 한다. 그래서 하이 팡 현지에서는 한인 두 세대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전성화와 이지홍은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다(전영상, 2010: 27, 31; 김기태, 2011; 河東永煥, 1942: 87).<sup>8</sup> 그리고 1937년경에 이르면, 하이 팡에는 전성화 가족을 포함하여 한국인 3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인삼 장수로 넉넉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김기태, 2002: 412; 윤대영, 2010: 107-108).

하이 팡의 전씨 일가 주택은 2층 건물이었고, 맞은 편에 ‘Casino’라는 영화관이 있었다. 1층 가게에는 큰 유리를 통해 한국산 홍삼, 백삼, 인삼정과 중국의 길림삼, 미국의 화기삼 등이 진열되었다. 아내는 각종 인삼을 가게에서 판매했고, 남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승용차도 구입하여 인삼 판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전념했다. 그래서 전성화는 승용차에 인삼을 싣고 각 지방을 돌며 단골들에게 판매하면서 보통 2~3개월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전영상, 2010: 27, 29).

다음으로 전씨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자. 전씨 가족이 홍콩에 체류 중

<sup>7</sup> 송하광광(松下光廣, 마쓰시타 미쓰히로)은 1912년(당시 16세) 1월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와서 하이 팡의 세전양행(池田洋行)에 입사했고, 사이공의 삼정주식회사(三井株式會社)를 거치며 프랑스어와 베트남어를 익혔고, 1922년에 무역회사 대남공사(大南公司)를 하노이에 설립했다(平田豊弘, 2011: 120).

<sup>8</sup> 대남공사의 하이 팡 지점은 뽀 베르 거리 56번지(56, rue Paul Bert)에 있었다(武内房司, 2017: 40).

이었을 때에 전영순은 화교 사립 학교에 다녔고, 아직 어렸던 전영상은 이웃 아이들과 놀면서 광둥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점점 잊어버리는 자식들의 교육 문제를 늘 걱정했기 때문에, 전성화는 평안북도 삭주의 형과 신의주의 남동생, 그리고 용천의 처가와 상의한 끝에 자식들을 고국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 아이들은 1928년 늦가을부터 숙부댁, 외조모댁, 백부댁 등지를 다니며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다(전영상, 2010: 15, 68, 147; 동아일보 1965/03/08; 김기태, 2011).

그런데 유학을 떠났던 전영순(당시 18세)은 부모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다시 함께 살자고 요청했다. 결국, 백부의 도움으로 전영순과 전영상(당시 14세)은 출국 수속을 마친 후 일본 여객선을 타고 1937년 3월 10일 홍콩에 도착했다. 형제는 부친의 현지 지인과 약 1주일을 홍콩에서 보낸 후 21일 하이퐁에 도착하여 모친과 재회할 수 있었고, 이후 지방에서 인삼을 모두 처분하고 돌아온 부친은 10년 만에 자식들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현지어를 몰라서 동네의 어떤 현지 청년과 충돌했던 전영상은 부친이 소개한 가정교사로부터 매일 4시간씩 베트남어를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약 3개월 후부터 베트남어 신문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었고, 6개월쯤 되었을 때는 신문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음도 정확해졌다”고 한다(전영상, 2010: 27-28, 30-31).<sup>9</sup> 약 10년 정도만 부모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체성은 인도차이나에서 다시 이렇게 적응 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면 전씨 일가의 다음 정착지인 하노이는 당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하이퐁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에 위치하며 인도차이나 총독부가 있던 하노이는 정치·군사의 중심지이자 경제와 교통의 요충지였고, 물자의 집산도 매우 많아서 상업은 번성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렀던 한인들은 “비교적 그 수가 가장 많았고”, 대개 상업에 종사했다. 중일전쟁 이전에 머물렀던 한인들은 21명이었는데, 정착해서 상점을 운영하던 3~4명을 제외하면 모두 행상인들이었다. 당시에는 행상이라고 하지만, 수익 면에서 정착해서 고정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행상인들은 식민 당국의

<sup>9</sup> 1964년 당시 남베트남 교포 사회에서 전영상의 베트남어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로부터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대부분이 퇴거 명령을 받았고, 1942년 1월 당시에는 가까스로 겨우 몇 명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河東永煥, 1942: 87).<sup>10</sup>

전영순과 전영상이 하이 풍에 도착한 후 1년이 지난 1938년 4월 무렵에 전성화 가족은 한인 15-16세대가 살고 있던 하노이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전성화는 하노이에서 계속 인삼 장사를 하면서 비교적 운택한 가정을 꾸려 나갔고, 전씨 형제는 고향에 돌아가면 일본군에 징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노이에 머물렀다. 전영순은 지인의 소개로 하노이 소재 “대척주식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회사는 ‘대만척식주식회사(臺灣拓殖株式會社)’를 말하는 것 같다. 1944년 당시 하노이에 주재하던 일본인회의 회원 명부에 의하면, 회원 “田崎英淳”이 대척(臺拓, No. 76-78 Boulevard Carnot<sup>11</sup> 소재)의 직원이었다(전영상, 2010: 31; 中野綾子, 2018: 27). 그리고 전영상은 “프랑스계 학교 엠배서더중학”에 입학했는데, 학생들 중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남베트남 정권의 제5대 수상(1965~1967 재임)과 제2대 부통령(1967-1971 재임)을 역임했던 응우옌 까오 끼(Nguyễn Cao Kỳ, 1930~2011)가 전영상의 학교 3년 후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영상이 다닌 학교의 정확한 명칭은 보호국 고등학교(Lycée du Protectorat)였던 것 같다(윤대영 외, 2013: 107; 전영상, 2010: 31; 동아일보 1965/03/16; 정구중, 1975: 219).<sup>12</sup>

이렇게 평북, 만주, 중국, 홍콩 등을 거쳐 하이 풍으로 이주한 전씨 일가 부모의 사업은 하노이에서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홍콩, 하이 풍, 하노이 등지에서 공부한 자녀들은 고국 유학에도 불구하고 이주지에서 현지화 과정을 거치며 적응 능력을 갖추어 나갔다. 그래서 장남 전영순은 대만척식주식회사와 같은 일본의 대만총독부 산하 기업<sup>13</sup>에서도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대동아 공영권’과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는 하노이에서 비교적

<sup>10</sup> 단신으로 장사하던 한인들은 대부분 인삼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는 의주 출신의 최준선(崔俊善)이라는 상인이 있었다고 한다(윤대영 외, 2013: 109).

<sup>11</sup> ‘Boulevard Carnot’는 현재의 판 딘 풍(Phan Đình Phùng) 거리이다.

<sup>12</sup> 이 학교의 베트남어 명칭은 ‘Trường Bưởi’(자몽 학교) 혹은 ‘Trường Trung Học Bảo Hộ’(보호국 중학교)였는데, 현재의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Chu Văn An’(쭈 반 안 보통 중학교)이다.

<sup>13</sup> 대만척식주식회사는 인도차이나의 광산업 이외에도 안다만(Andaman)의 임업과 네덜란드령 동인도 및 필리핀의 농업 등을 경영하고 있었다(Schneider, 2018: 183).

평온하게 살아가던 전씨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 III.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와 가정 환경의 변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프랑스 식민 당국은 중경(重慶)의 장개석(蔣介石) 정권에게 각종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랑스 측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중국 측을 계속 지원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0년 5월에 네덜란드가, 6월에 프랑스가 각각 독일에 항복하자, 일본은 8월 16일의 내각 회의(閣議)에서 작성된 「남방 경제 시책 요강(南方經濟施策要綱)」을 통해 ‘경제적 대동아 공영권’의 중심을 동남아시아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중일전쟁에서 전략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도차이나-운남(雲南)-중경 루트를 장악하려던 일본 정부는 우선 인도차이나로 “황군 진주(皇軍進駐)”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40년 8월 말경에는 중국과 인도차이나 국경 지역에서 일본군과 프랑스군 사이에 소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 결국 일본 외무성이 1940년 9월 19일에 현지 일본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 교민들은 퇴거하라는 임시 철수령을 내렸다(Dommen, 2001: 50-51; Hammer, 1954: 22; Nitz, 1983: 332; 보민부, 2022: 166-168).<sup>14</sup>

그래서 사이공의 ‘반도인’ 김상률을 포함한 한인 일행도 이튿날 “부랴부랴 인도차이나를 탈출하다시피” 떠나게 되었다. 그는 가옥, 가구, 상점, 상품 등은 물론 기타 재산 전부를 그대로 두고 가족만 데리고 귀국 길에 올랐는데, 이때 이용한 상선은 외무성의 주선으로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온 “아리소나환(丸)”이었다. 당시 피난민은 전부 130명이었고, 그중 “대만인이 32명, 조선인이 21명이었고, 그 외는 전부 내지인이었다.”(윤대영 외, 2013: 109; 전영상, 2010: 32; Smith, 1978: 268) 그리고 1940년 11월 당시에 김영건의 증언에 의하면, “반도인은 25명이었는데 모두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귀국하였다.” 이처럼, 전씨 일가도 대

<sup>14</sup> 실제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는 1940년 9월 22일 북부의 랑 썬(Lang Sơn)과 하이 풍에서 개시되었고, 남부 진출은 1941년 7월 말에 마무리되었다.

사관의 임시 철수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매일신보 1940/11/18; 전영상, 2010: 32).

전씨 가족이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0년 10월에 일본군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무혈 진주에 성공한 후 각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다. 사이공을 출발한 후 해남도(海南島)에 도착한 김상률 일행은 인도차이나 북부에서 피난한 “방인(邦人, 자국민)” 중 20명이 다시 하노이 방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일본 대사관의 징용 조치로 해남도에서 대기 중이던 이지홍과 전영순은 일본군의 무혈 진주 때 함께 인도차이나로 돌아왔다. 전영순은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갔고, 한국어, 일어, 중국어 및 프랑스어가 가능했던 이지홍은 일본군 헌병대에 배속되어 장교 통역관으로 계속 근무했다(윤대영 외, 2013: 109; 전영상, 2010: 34).

일본군의 무혈 진주 소식을 들은 전성화는 현지의 사업이 걱정되어 1941년 초에 다시 홀로 인도차이나에 돌아갔다. 부친이 떠난 지 2개월쯤 지났을 때, 전영상은 모친과 상의하고 배편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당시 임신 8개월이던 모친이 승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전영상은 고심하다가 혼자 인도차이나로 재입국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다니던 학교에 가서 지난 4개월 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후에 전영상은 부친에게 어머니와 다른 동생들을 데려오자고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부친은 어머니가 동생들의 교육 문제로 다시 오지 않기로 결정했고, 삭주에 2층 건물을 구입하여 여관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전영상, 2010: 34-38).<sup>15</sup>

그런데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와 점령 이후에 대동아 공영권의 여파가 전씨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원병제와 학병제가 운용되고 있었는데,<sup>16</sup> 일본은 ‘대동아전쟁’ 당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지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 회사원을 비롯해 교포, 상인들을 신병으로 확보하고 있었다(유남성, 1986b: 119). 그러던 어느 날 이지홍이 전성화를 찾아와 일본 헌병

<sup>15</sup> 전성화는 그동안의 과정과 계획들을 자식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홀로 진행했다.

<sup>16</sup>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1936년 12월 당시 조선 지원병 이사에 임명된 조병상(曹秉相)의 장남은 지원병으로, 차남은 학병으로 각각 1937년 5월과 1940년 12월에 버마와 인도차이나 북부로 파견되었다(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949).

대가 전영상을 베트남어 통역관으로 징용하느냐 아니면 징병제로 입대시키느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지홍은 징병제로 징집되어 전선에 배치되기보다는 징용되어 군속 통역관으로 배속되는 편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지홍은 전영상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베트남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하면서 일본 헌병 대장에게 그를 징용 조치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지홍의 도움으로 전영상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사관 대우 통역관 군속으로 일하게 되었다(전영상, 2010: 36, 147).

당시 일본군이 인도차이나에 주둔하면서부터 다수의 중국 정보원이 지하 활동을 하거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장개석 정부에 보고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챈 일본 헌병대가 이 정보원들을 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통역관 전영상의 임무는 일본군이 헌병대에 감금된 중국 스파이들 중에서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취조할 때 통역하는 역할이었다. 이때 전영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조할 때 고문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전영상, 2010: 36-37).<sup>17</sup>

아울러, 장성한 자녀들이 일상에서 현지인들과 형성한 인간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에 베트남 여성과 교제하던 전영순은 회사 사택에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동거하게 되었다. 전영상은 부친과 살고 있었고, 전성화는 장남의 동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동생은 형의 동거 소식을 고국의 모친에게 알렸지만, 모친은 장남이 현지 여성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차남을 반드시 한국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영상이 부친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전영순은 동거 중에 생긴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인사하러 왔다. 장남이 아내를 인사시키고 손자를 보여 주자, 부친은 식사 도중에 크게 화를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전영순은 할 수 없이 아내와 함께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전영상은 방에서 나온 부친에게 형의 국제결혼을 인정하고 손자도 한번 안아 주라고 했다. 그러나 전성화는 아무런 답변 없이 아내의 편지 3통을 차남에게 보여 주며 읽어 보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sup>17</sup> 1944년 6월경에는 오사키(Osaki, 大崎) 헌병 대장이 헌병 하사관들에게 베트남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 전영상을 베트남어 교관으로도 임명했다. 갑작스러운 임명에 당황한 전영상은 계획을 세워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후 그가 가르친 하노이 헌병대의 베트남어 시험 성적이 제일 우수하게 나왔다고 한다(전영상, 2010: 38-39).

만은 한국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한국에서 신부감을 찾겠다는 내용이었고, 차후의 결혼을 위해 돈도 저축하라는 당부였다(전영상, 2010: 35, 38, 48).

또한, 일본 헌병대의 군속이었던 전영상과 프랑스가 지지하던 베트남국(Quốc Gia Việt Nam, 1949~1955)의 미래 군인 응우옌 까오 끼 두 사람의 우정도 1943년 봄 무렵에 싹텄다. 당시 전영상은 이웃집에 살던 보호국 고등학교의 3년 후배 응우옌 까오 끼와 인연이 되어 그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고, 끼의 가족과 한집안처럼 지내게 되었다. 당시 끼는 홀어머니, 누나 네 명, 여동생 한 명이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전영상은 틈틈이 상점에 들러 후배 어머니의 장사 일을 도와주곤 했었다. 그래서 응우옌 까오 끼는 전영상을 친형이나 친구처럼 따랐고, 끼의 어머니도 전영상과 끼를 “끼 코레안”, “끼 베트남”이라고 불러 형제처럼 귀여워해 주었다(동아일보 1969/01/07).<sup>18</sup> 그리고 이러한 끼 가족과의 관계는 전영상이 ‘월남’ 이후에도 사이공(Sài Gòn)에서 우연히 만난 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방 한 칸을 빌어 함께 생활했고, 고철 수출 회사 신흥양행에서 근무하던 1958년 당시에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때 끼의 내외와 가족들이 하객으로 참석하는 인연으로도 이어졌다(정구중, 1975: 219; 전영상, 2010: 60-61). 현지에 한인 여성들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통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관은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절친한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내나 어머니가 없는 전씨 가족이 일본군 진주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을 때, 태평양 전쟁 이후 미 육해공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의 제공권과 제해권이 약해져서 물자 및 보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향에서 자주 오던 편지도 갑자기 끊어졌는데, 1944년부터 전성화는 삭주에 남아 있던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어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전영상, 2010: 39, 56).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공세에 점점 밀리고 인도차이나를 프랑스와 공동 통치했던 일본은 전쟁 말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나갔다. 그래서 일

<sup>18</sup> 남베트남 시절에 전영상과 응우옌 까오 끼는 틈날 때마다 가끔 만나 옛 고향 하노이의 추억을 더듬으며 회포를 풀곤 했다.



본군은 1945년 2월 중순경에 프랑스 정보국이 교육자와 역사·문학·종교 연구자로 명성이 높았고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쩌 쩌 김(Trần Trọng Kim, 1883~1953)을 체포하려 한다는 정보를 “베트남 당 요원들”로부터 받았을 때,<sup>19</sup> 그 날 밤 일본 헌병대는 사복 헌병 두 명과 전영상을 파견하여 그 학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전영상, 2010: 40).

이후에 인도차이나 주둔 일본군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던 프랑스군 당국은 일본군이 현지 전역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확보했고, 1945년 3월 7일에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을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챈 일본 헌병대는 작전 개시 시점을 극비리에 1945년 3월 9일 오후 6시로 정하고, 헌병들의 외출을 허가하는 위장 작전을 구사했다. 일본군의 공격 일자로 알려진 3월 8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본군들이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한 프랑스군 당국은 허위 정보라고 믿고 9일 아침에 외출 및 휴가 금지령을 해제했다. 일본 헌병대는 9일 오후 4시 전까지 외출한 장병들을 복귀시켜 저녁 6시에 전면 작전을 개시했고, 일본군은 작전대로 프랑스군이 지키던 인도차이나 총독부를 포위했다(전영상, 2010: 40-41).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전영상은 일명 ‘명호 작전(明号作戰)’으로 불렸던 이 작전에 참여하면서 공포심을 느꼈다. 그는 헌병 부대의 일원으로 총독부 건물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현지 베트남인 군인 한 명을 생포했다. 헌병 조장은 그 포로에게 전영상의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일본군이 프랑스 식민 통치하에 있는 베트남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작전 중이다.”라고 말했다. 헌병 조장은 포로병에게 총독부 안으로 들어가 일본군의 항복 요청 내용을 전달하라고 시켰다. 그는 전영상의 통역을 들으면서 관련 내용을 수첩에 적었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곧이어 일본 헌병들이 소총과 경기관총으로 건물을 향해 위협 사격을 했다. 약 10분 후 60세 가량의 키 작은 프랑스 남자가 40여 명의 남녀 공무원들을 이끌고 선두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백기를 든 남자는 총독부의 군부 담당 각료로서 군부 최고 책임자였다. 1945년 3월 9일의 일본군 쿠데타는 인도차이나에서 4년 이상 지속된 프랑스 식민 당국과의 불편한 공존 관계를 끊어 버리고

<sup>19</sup> 현재로서는 이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불분명하다.

무력으로 프랑스를 굴복시켰다. 그리고 전영상은 “이렇게 일본군은 베트남 각지 주둔 프랑스군의 무장 해제를 이룰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약 90년간의 식민 통치가 종식되었다”고 평가했다(Nitz, 1983: 328; 전영상, 2010: 41-42).<sup>20</sup>

베트남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본의 작전이 진행되었을 때, 바오 다이(Bảo Đại) 황제는 3월 11일에 중부(안남)와 북부(퐁킹) 지역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독립, 1884년의 보호국 조약 파기, 그리고 “대동아의 일부”임을 선언하며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베트남 민족주의 그룹의 요청으로 하노이 일본 헌병대에서 약 1개월간 보호받고 있던 쩌 쯡 킴이 수상에 취임했고, 4월 17일에는 황제가 수상에게 내각의 구성을 맡겼다. 그리고 6월에는 새로운 나라의 국호(‘베트남 제국(Đế Quốc Việt Nam), 국가(Đàng Đản Cung [登壇宮]), 국기 등이 정해졌다(Bao Dai, 1971: 31-32; Trần Trọng Kim, 1969: 51-53; 전영상, 2010: 42). 그러나 ‘대동아 공영권’에 협력한 쩌 쯡 킴 정부는 실질적으로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전영상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부터 베트남독립동맹(일명, 비엠티, Việt Minh, 越盟)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었다. 비엠티 민은 일본군의 프랑스군 무장 해제 이전까지는 잠잠했다가, ‘친일’ 정부가 수립되자 학생들을 포섭하여 야간에 반일 선전 전단을 뿌렸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영화관 등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공산 혁명 달성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기치 아래 죄 없는 자국민들이 살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은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여 패망할 때까지 비엠티 민 토벌 작전을 실시했다(전영상, 2010: 42-43). 그러나 비엠티 민은 일본의 전시 경제 정책으로 발생한 1945년 북부 농촌의 대기근 당시에 식량 창고를 공격하여 식량 공출과 부역에 불복종하는 운동을 주도하여 다가올 8월 혁명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었다(Trần Huy Liệu, 1957).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 풍을 거쳐 하노이에 정착하며 인삼 영업으로 경제 기반을 다져 나가던 전성화와 일본계 대만 회사에 다니며 베트남 여성과 살림을 차린 전영순, 그리고 일본군 군속으로 활동하면서 현지인 이웃들과 교류하던 전

<sup>20</sup>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왕들도 함께 독립을 선언했다.

영상은 대동아 공영권의 붕괴 위기에 직면하며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 IV. 일본의 패망과 가문의 위기

일본의 패전으로 베트남에는 정치적인 공백 상태가 야기되었다. 일본군이 연합국에 항복했을 때, 쩌 쩌 킴 내각도 1945년 8월 23일에 붕괴했고, 호 쩌 민(Hồ Chí Minh)이 이끄는 비엠티민 세력이 8월 혁명을 주도하여 북부의 통치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호 쩌 민을 주석으로 하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9월 2일에 선포되면서 패망한 일본군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38선이 그어졌다. 이북 땅에 소련군이 진주했다는 소문을 들은 전씨 일가는 고향에 돌아갈 것을 포기했고, 전영상은 부친과 함께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전영상, 2010: 43; 정구종, 1975: 219). 이러한 정세의 변화가 전씨 집안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이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패망에 기뻐한 하노이의 교민들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월 한국 교민회를 창립하면서 전성화를 초대 회장, 일본군에게 식품 군납업을 하던 김찬길(金讚吉) 사장을 총무, 일본 육군성과 해군성의 촉탁이자 광산 전문가로 광물 자원 조사를 위해 인도차이나에 오게 된 유남성(柳南城, 1918년 강원도 출생)을 자문 위원으로 선출했다. 교민회는 정관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내무부(Bộ Nội Vụ)에 등록했고, 당시 내무부장관 보 응우옌 잡(Võ Nguyên Giáp)의 주선과 전영상의 통역으로 호 쩌 민을 직접 예방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한반도의 독립을 지지했던 호 쩌 민은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외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말하며 한국 교민의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고, 양국의 우의가 지속되기를 바랐다. 아울러, 교민회는 교민들에게 일본인이나 화교가 아니라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게 하고 가슴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게 하여 피해를 막기로 했다(조선일보 1946/06/03; 전영상, 2010: 43-44, 51; 동아일보 1965/03/16; Hồ Chí Minh, 2000: 74; 유남성, 1986a: 61).<sup>21</sup>

그런데 중국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1945년 9월 11일부터 하노이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전씨 가족에게는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과연 호 쯔 민 주석의 기대와 바람이 현지 교민들에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

이족(彝族) 출신이자 제일방면군(第一方面軍) 총사령(總司令) 노한(盧漢, 1896~1974)이 이끄는 20만 명의 중국 국민당 정부군이 하노이에 도착해서 현재의 쭈 반 안 보통 중학교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런데 규율이 전혀 서 있지 않았던 이 군대는 라오 까이(Lào Cai)와 랑 썬(Lang Sơn)을 통과하며 베트남 국경 지대에서 시작한 약탈을 하노이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 군대는 공공건물은 물론 민가에도 침입하여 값진 물건을 모두 빼앗아 갔다. 노한 자신도 호 쯔 민에게 막대한 양의 금을 바치라고 강요했다. 이러한 강요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호 쯔 민은 9월 16-22 일을 ‘황금 주간(Tuần Lễ Vàng)’으로 정해서 베트남인들에게 호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로 금을 거두어들여 노한에게 상납했다. 호 쯔 민은 금을 헌납한 이후에는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금제 흡연 용품과 금제 아편 파이프를 제공하며 노한의 정치적 호감도 사려고 했다. 당시 노한은 민족주의 계열의 베트남 국민당과 베트남혁명동맹회의 회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공산당에 대항하려 했기 때문에, 호 쯔 민으로서는 11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을 해산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45년 11월 프랑스 신문사의 한 특파원은 인도차이나의 북부 절반만 점령한 중국군이 베트남 전역을 점령했던 일본보다 몇 배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유인선, 2012: 323-324; Brocheux, 2007: 108; Bui Diem and Chanoff, 1999: 39-40; Devillers, 1947).

이러한 상황에서, 전씨 가족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1945년 10월 경 전성화는 그동안 모든 재산과 집이 몰수되었고, 정세의 불안으로 사업도 중단되었다. 게다가 같은 달 하순의 어느 날 오후 2시경에 전영상이 부친의 심부름을 마치고 귀가했더니, 전성화는 두 손이 묶인 채 목 뒤로 묶은 긴 수건을 입

21 베트남과 중국의 전통적인 갈등 관계 이외에도, 1945~1946년 중국 국민당군의 베트남 주둔이 현지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화교에 대한 북부 베트남인들의 시선도 곱지 못했다(CIA, 1950: 5).

에 몰고 있었다. 너무나 놀란 차남이 수건을 풀어 버린 후 사정을 물었더니, 아들이 심부름을 나간 뒤에 곧이어 기관총으로 무장한 중국군 6명이 침입해서 부친이 20여 년 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한 “목침 덩어리만한” 순금괴와 다른 물건들을 훔쳐 갔다고 했다. 원래 전성화는 이 금괴들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 각 항구를 연결하는 화물 수송 사업을 시작해서 차후에는 차남이 맡아 경영하기를 원했었다. 고국으로 돌아가 운송 사업을 하려던 전성화의 전 재산이 이렇게 강도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김기태, 2011; 전영상, 2010: 47, 49-50; 이석열, 1966).

전영상이 통역관으로 생활하며 5년 동안 받은 월급을 모아 마련한 금은 무사했는데, 그가 금을 구입한 후 페인트를 칠해 놓아 강도들은 금인 줄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영상이 부친을 위로하기 위해 이 일화를 이야기하니, 부친은 그 금도 위험하다며 아는 집에 맡기라고 주장해서 차남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 공산 정권은 이 집이 지주의 집이라며 몰수했기 때문에, 전영상의 금도 이렇게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전영상, 2010: 50).

1945년 말에 26세의 나이로 2남 1녀를 둔 전영순은 일본 회사에서 근무했고, 베트남과 프랑스인의 ‘혼혈’ 청년에게서 프랑스어 가정 교습을 받으며 프랑스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호찌민 정권의 공안원들이 자택에서 그를 연행해 갔다. 중앙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전영순은 2개월 후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 형무소 당국이 소재지를 알려 주지 않아서 행방불명된 상태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비협조적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했다고 한다(전영상, 2010: 46, 56, 147; 정구중, 1979: 219).<sup>22</sup>

다만 일상에서 전영상이 형성했던 현지인과의 관계는 자신의 운명을 종종 둘러놓은 경우가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외출하고 귀가할 때, 일본 헌병대에 가끔 출입하던 어떤 화교가 지나가던 그를 보고 함께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전영상은 이 화교를 따라 식당에 들어갔다. 화교는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어느 프랑스

<sup>22</sup> 전영상은 “찌 호아(Chi Hò)의 중앙 형무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도차이나 당국이 1886-1901년 사이에 건설한 ‘중앙 형무소(Maison Centrale)’, 즉 하노이에 소재한 호아 로(Hòa Lò) 형무소를 가리키는 것 같다(Logan, 2000: 67-68; Zinoman, 2001: 52; Coram, 2007: 178). 그리고 찌 호아 형무소(Khám Chí Hò)는 실제 현재의 호찌민 시에 있다.

인과 대화했는데, 이 프랑스인이 전영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전영상은 이 식당이 프랑스 정보원들의 비밀 연락처임을 직감하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식당 뒷마당 쪽으로 나와 2.5m 정도의 울타리를 넘어 도망갔다. 그 화교가 쫓아 오면서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치자, 근처의 중국군 헌병대 초소 헌병이 전영상을 붙잡아 화교와 함께 헌병대 본부로 연행했다. 사무실에서 헌병과 대화하던 정보원이 전영상을 알아보고 연행 이유를 물었고, 전영상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 정보원은 일전에 자신이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고문받았을 때, 통역을 담당한 이지홍과 전영상이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헌병대에 이야기했다. 그래서 전영상은 뜻하지 않게 중국 정보원의 도움으로 헌병대에서 풀려나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전영상, 2010: 47, 49).

태평양 전쟁 이후 인도차이나에 다시 귀환한 프랑스 세력도 전씨 가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연합군으로부터 연고권을 인정받아 식민 통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하순 인도차이나 남부에 군대를 파견했다. 남부를 장악한 프랑스군은 1946년 11월 말에 하이퐁에 상륙하여 북베트남군과 격전을 벌인 이후 하노이로 진격하면서, 양측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전영상, 2010, 50; 정구종, 1979: 219).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었다.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과 해군 및 공군의 지원에 밀린 북베트남군이 1946년 12월 말 하노이에서 후방의 산악 지대로 후퇴할 무렵에, 북베트남의 어떤 공안원이 나이가 많은 전성화는 끌어가지 못했고, 대신에 전영상을 총으로 위협하여 연행한 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타이 응우옌(Thái Nguyên)의 형무소에 투옥했다. 전영상은 부친이 평소 북베트남군에게 비협조적이어서 자신을 대신 끌어들여 형무소에 수감한다고 생각했다. 전영상이 수감된 방에는 이미 3명의 수감자가 더 있었는데, 김찬길과 전완용(全完用),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대만인이었다.<sup>23</sup> 재소자들이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전영상은 베트남어를 가르치며 형무소 생활을 했다. 약 2개월 후에는 형무소의 재소자 전원이

<sup>23</sup> 전완용의 일본식 성은 “아마노(山野)”였던 듯하다.

타이 응우옌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박 칸(Bác Cạn 혹은 Bắc Kạn)<sup>24</sup>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여기에는 악성 말라리아 모기가 유명해서 많은 재소자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전영상도 결국 이 병에 걸려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 때문에 그의 몸은 급속하게 나빠졌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정신적 외로움에 시달렸던 전영상은 다른 재소자들이 원하는 담배도 피우게 되었다(정구중, 1975, 219; 전영상, 2010: 51; 김기태, 1999: 6).

그러던 어느 날, 형무소는 갑자기 재소자 300여 명 중 60명을 별도의 큰 방에 수감했는데, 이 중에는 전영상과 다른 한인 2명, 그리고 대만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에 이 60명 중 대만인도 포함된 20명이 호명되어 형무소 밖으로 나갔는데,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틀 후에는 김찬길과 전완용이 포함된 20명이 다시 불러 나갔는데, 이 사람들도 사라졌다. 마지막 3차 명단에 포함된 전영상은 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1·2차 명단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결국 살해당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 전영상은 전전긍긍하며 부모와 형제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사주 큰어머니와 “교회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는 홀로 지내는 부친을 생각하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생각을 하니 기도가 절로 나왔고, 절망의 심정이었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작은 소리로 오로지 1절만 기억하고 있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전영상, 2010: 51-52).

다음 날 아침 하노이에서 형무소에 도착한 시찰단은 각 방을 순회하던 중에 전영상이 수감된 방에도 들렀다. 그런데 그는 시찰단 중에 고등학교 재학 때 자신을 가르친 응우옌 반 록(Nguyễn Văn Lộc, 1914-1979)<sup>25</sup>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당시 까오 방(Cao Bằng), 박 칸, 타이 응우옌(Thái Nguyên) 3성(省)의 혁명 운동을 책임지고 있던 그는 제자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날 밤,

<sup>24</sup> 현재 박 칸 성의 성도(省都) 박 칸은 비엠티 민의 대불 항전 초기에 주요 본부 중의 하나였고, 1953년 당시에는 국경 지대 까오 방(Cao Bằng)으로 전달된 중공 측의 지원 물자가 통과하는 경유지이기도 했다(Joes, 2010: 102; CIA, 1953).

<sup>25</sup> 응우옌 반 록은 1914년 3월 14일 하동(Hà Đông) 성(현재는 하노이 소재) 응 호아(Ứng Hòa) 현(Huyện) 따오 즈영 반(Tào Dương Văn) 사(Xã) 따오 케(Tào Khê) 촌(Thôn)에서 태어났고, 1979년 하노이 마이 직(Mai Dịch)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전영상은 내일 새벽에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며 한잠도 이루지 못했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라는 찬송을 계속 불렀다고 한다. 다음 날 새벽 2시에 마지막 3차 명단이 호명되기 시작했는데, 이 명단에는 19명만 있었을 뿐 전영상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그는 바로 그때 자신을 가르친 응우옌 반 록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한다(전영상, 2010, 52-53; TTXVN, 2008).<sup>26</sup> 전영상은 이렇게 다시 한번 현지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이후 발튀(Jean Étienne Valluy) 장군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은 1947년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레아 작전(Opération Léa, 일명 Chiến Dịch Việt Bắc)’으로 비엠티민 세력의 거점 박 칸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래서 10월 7일 박 칸에 투하된 1,100명의 낙하산 부대원은 재빨리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호찌민과 비엠티민의 지도자들을 생포하는 데에는 실패했고, 오히려 비엠티민의 역공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울러, 프랑스군 10개 대대(약 15,000명)가 중국에서 비엠티민에게 전달되던 보급품을 차단하기 위해 북쪽의 랑 썬에서 까오 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까오 방의 응우옌 빈(Nguyễn Bình) 현을 거쳐 박 칸으로 들어갔다. 이 부대의 목적은 비엠티민 군대를 포위하여 괴멸시키는 것이었지만, 열악한 도로, 지뢰, 매복 때문에 13일에서야 비엠티민이 강력하게 저항하던 박 칸 근처에 도착했고, 16일에 포위망을 뚫고 낙하산 부대를 구출할 수 있었다. 로(Lô) 강과 검(Gâm) 강을 거슬러 올라 공격하기로 했던 4개 대대는 너무나 늦게 도착해서, 이 작전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Joes, 2010: 102; Davidson, 1988: 49; Tucker, 1999: 55; Herring and Fall, 2005: 28-31).

이 과정에서 10월 7일 아침 6시에 전영상은 갑자기 요란한 프랑스군 전투기 소리와 공지대지 기관총 소리를 들었다. 폭격 소리의 진동으로 형무소 천정에서 먼지가 떨어졌고, 얼마 후 프랑스 낙하산 부대가 큰 수송기에서 투하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재소자들이 모두 환호했지만, 곧바로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 형무소 감시병들이 도주하기 전에 재소자들을 집단 사살할 수 있기 때문이

<sup>26</sup> 전영상은 “은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었다(전영상, 2010: 53).

오전 10시경에 교전 소리가 멈추며 형무소 철제문이 파괴되었고, 잠시 후 프랑스인 중위 1명과 현지인 상사 1명이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이 두 사람이 전영상의 방에 들렀을 때, 그 현지인 상사가 전영상을 보고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악수를 청해 왔다. 그는 과거 전씨 가족의 이웃에 사는 지인이었고, 가끔 전영상과 커피도 마시곤 했었다. 학자이자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응우옌 반 또(Nguyễn Văn Tố)는 당시 작전 중이던 프랑스군에게 체포되어 고문 끝에 살해당했지만, 전영상은 그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한 번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가 10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북베트남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전영상, 2010: 54, 147; Ban Tuyên Giáo Trung Ương, 2019).<sup>27</sup> 그래도 이번에도 이렇게 전영상을 도와주고 구해 주는 현지인이 나타났던 것이다.

군용기 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한 전영상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는 부친이 외출에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버님, 영상이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니, 전성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 했다. 전영상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귀가했지만, 말라리아 증세가 계속되어 결국 의사의 검진을 받았는데, 악성 말라리아 진단을 받고 알약과 주사약을 맞으며 완치되었고, 전신 피부병도 물약을 타서 매일 목욕하며 치료되었다. 그래서 1947년 11월 말에는 젊은 나이(24세) 때문인지 전영상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었다(전영상, 2010: 54-55).

모든 재산을 중국군에게 약탈당한 전성화의 인삼 판매업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영상은 건강이 회복된 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파월 농업기술 지도자이자 친구였던 대만인 장금찬(張錦燦)<sup>28</sup>을 만나 시장 상황을 알아본 후 운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해서 승용차, 트럭, 택시와 버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전영상은 부친께 운수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화물차 1대를 구입

<sup>27</sup> 전영상은 “이 모두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sup>28</sup> 장금찬(張錦燦)은 전영상처럼 1944년 당시 하노이 일본인회(日本人會)의 회원이었고, 그가 다니던 회사는 대남제마주식회사(台南製麻株式會社) 하노이 출장소(No 9 Rue Dufourcq 소재)였다(中野綾子, 2018: 24).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해서 적재량 3,500kg의 미제 포드(Ford) 화물차를 마련했고, 사업에 매진한 결과 단기간에 부친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 1948년부터 하노이 시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화물차의 화물 위에 앉을 수 없게 되자, 전영상은 기존의 화물 운송 노선을 변경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저축한 자금으로 성능이 좋은 중고 화물차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의 화물차를 운용했다(전영상, 2010: 55-57).

이렇게 차남의 소규모 운수업이 진행되던 중에 엽차 도매 사업을 시작한 전성화는 이웃집 조수 1명을 고용하고 직접 운전하며 소매상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1948년 9월 3일에 전성화(당시 53세)는 소매상들에게 납품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처음 방문하는 장소로 직접 운전하고 갔는데, 북베트남 정부 계열의 게릴라에 의해 그만 피살당하고 말았다. 전영상은 장금찬의 도움으로 아무도 없는 인도차이나에서 부친의 장례를 혼자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으로 슬픔과 고독은 더해져만 갔다(전영상, 2010: 56, 147; 김기태, 2002: 412; 동아일보 1964/10/29; 이석열, 1966).<sup>29</sup> 더군다나 한국전쟁으로 고국의 모친이나 동생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없었다. 1952년 경 어느 날에 전영상은 하노이 시에서 남부 쩌 린(Chợ Lớn)의 화교들이 발간하던 『원동일보(遠東日報)』<sup>30</sup> 1면에 미 공군이 삭주역을 폭격했다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1944년부터 연락이 끊긴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사 여부가 걱정되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전영상, 2010: 57, 147).<sup>31</sup>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여파로 전영상은 하노이에 숨어 살면서 1954년 5월 7일의 디엔 비엔 푸(Diên Biên Phủ)의 함락과 프랑스군의 패배를 목격했다. 그리

<sup>29</sup> 당시 남부의 사이공-다 랫(Dà Lạt) 구간에서도 민간인 호송 화물차가 비엠티 민의 습격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Le Monde* 1948/04/03).

<sup>30</sup>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원동일보』는 1940년 3월에 창간되었고,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로 정간되었다가 1945년 9월에 복간(復刊)되었다. 독자는 대개가 일반 시민이나 상인이었고, 당시의 발행 부수는 2,000부 정도였다(方积根·胡文英, 1989: 115; 巫乐华, 1994: 208; 温广益 外, 2000: 322).

<sup>31</sup> 1950년 11월 당시 미 극동 공군이 제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시 파괴 통계에 의하면, 만포진 95%, 고인동 90%, 삭주 75%, 초산 85%, 신의주 60%, 강계 75%, 희천 75%, 남시 90%, 의주 20%, 회령 90% 등이었다(김태우, 2013: 301). 그리고 동생들의 이름은 나이순으로 영해(英海), 영종(英宗), 영선(英善), 영자(英子), 그리고 영국(英國) 등이었다(전성화, 2010: 57).

고 1954년 7월 20일에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자, 100만여 명의 북부 베트남 사람들이 17도선 이남으로 월남했고, 한인들도 대부분 남부로 탈출했다.<sup>32</sup> 이때 전영상도 트럭 2대를 매각했고, 나머지 1대를 배편으로 사이공에 보냈다. 그리고 사이공의 형수 집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한 그는 미래의 남베트남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전영상, 2010, 59).

이와 같이 일본의 패망 이후에 찾아온 대동아 공영권의 붕괴는 전씨 가문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그때마다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전영상은 17도선 DMZ 저편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운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 시대에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던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민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베트남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베트남의 항구와 철도는 해외 독립운동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양을 둘러싼 부원과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한인들은 중국 남부를 거쳐 프랑스로 인도차이나까지 이주하기도 했다.

전씨 가족의 경우에 전성화는 독립운동 탄압을 피해서 1925년 홍콩에 정착했고,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도 따라왔다. 가정 환경의 변화로 현지에서 인삼 장사를 시작한 전성화는 고객들이 많았던 인도차이나 지역을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에 종사했고, 결국 1933년 무렵에 근거지를 인도차이나 북부의 대표적인 항구 하이 풍으로 옮겼다. 인삼 장사로 경제 기반을 다진 전성화는 1938년에 하노이로 이사했고, 장남이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하던 일본계 대만 회사에 근무했을 때 차남은 프랑스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 전후로 상황이 달라졌다. 현지 일본 대사

<sup>32</sup> 1950년 4월 당시 사이공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수는 약 30명 정도였다(조선일보 1950/05/11).

관의 철수령으로 전씨 가족은 일단 고국으로 갔다가 한 사람씩 다시 인도차이나로 돌아왔지만, 모친은 그럴 수 없었다. 이후에 일본군에 징용되면서 1945년 3월 9일 일본군의 쿠데타 과정에서도 통역으로 참여한 전영상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 통치가 와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몇 안 되는 한인들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8월 혁명 이후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시행한 정책과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은 전씨 가문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유지했던 사업과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부친과 장남은 목숨을 잃었고, 차남 전영상만이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월남’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17세기 전반에 『최척전』이 상상했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무대 ‘안남’은 20세기 전반의 엄혹한 난국을 이겨 내어야만 하는 생존의 현장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영상의 회고록에 종종 등장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

전씨 가문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한반도, 만주, 중국, 홍콩, 인도차이나의 하이퐁, 하노이, 사이공 등지를 넘나들며 20세기 전반 한인 가족 아시아 지역 이민사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족의 이주 범위는 주변 동북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 동남아까지 확장되었으며, 가족의 활동 영역은 독립운동에서 정착지의 생계형 경제 활동으로 점점 변화되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난 인삼 거래와 중국인, 베트남인, 프랑스인, 일본인, 대만인에 이르는 다국적 인물들과의 접촉은 전씨 일가가 정착한 현지에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초기의 독립운동과 사회 활동에서 점점 멀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일상의 일탈’이나 부득이하게 일본에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전영상 개인의 생애사와 가족사를 통해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지역사적 차원의 접근은 재외 동포 이민의 역사가 독립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진행된 가족 이민의 역사는 현지인과의 결혼 문제나 인간관계 형성 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또는 현지 교육이나 취업을 통해 성장한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은 한반도, 만주, 대만 등지에서 노동력과 물

자 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한 전시 체제의 법령 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5월부터 시행하여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대동아 공영권’의 전시 통제 체제가 일본과 한반도, 대만, 만주국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에 거주하던 한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 인도차이나의 역사에 ‘실존’했던 ‘반도인’ 전역상의 생애사와 가족사 연구는 당시 인도차이나 북부나 남부에 거주하던 다른 한인들의 사례로 확장되어,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연결되던 사람 및 물류의 지역적인 흐름이나 이 과정에 내재되어 있던 인적·물적 교류의 실상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1954년 7월부터 북베트남을 탈출해서 남베트남에 정착한 한인 피난민들의 다양한 삶을 검토하는 단계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20세기 후반에 ‘월남’한 한인들의 체험과 남베트남의 역사는 비단 인도차이나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나 더 나아가 한반도를 통합적으로 비추어 보며 소통할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투고일: 2022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2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 참고문헌

### 1차자료

- 『경향신문』, 1975. 5. 13. “僑民·越難民들, 安堵와 感激으로 벅차 “이젠 살았다 … 自由 만세.”” 7면.
- 『국민보』, 1938. 2. 9. “28개국에 산재한 한국 동포의 수.”
- 『동아일보』, 1922. 3. 27. “安東縣 基督 青年會.” 4면.
- \_\_\_\_\_, 1925. 4. 15. “軍容을 口齊한 朝鮮의 筆陣 抑壓된 言論界에 活躍의 第一歩.” 2면.
- \_\_\_\_\_, 1925. 6. 4. “十年間 空閑에 男便그리워 自殺.” 2면.
- \_\_\_\_\_, 1925. 8. 26. “安東縣 幼穉園 期成 音樂 講演.” 4면.
- \_\_\_\_\_, 1938. 1. 13. “各地 在留 同胞의 近況: 廿八個國에 散在한 同胞.” 2면.

- \_\_\_\_\_, 1940. 1. 3. “海外 同胞의 迎春譜 世界 二十餘 國에서 多歧多彩한 生活.” 9면.
- \_\_\_\_\_, 1964. 10. 29. “越南의 韓國人들 30名의 僑胞는 어떻게 지내고 있다.” 4면.
- \_\_\_\_\_, 1965. 3. 8. “安心하세요 駐越 醫務團의 家族 通信.” 3면.
- \_\_\_\_\_, 1965. 3. 16. “韓·越 貿易 展望은 밝다 「사이곤」서 僑胞 實業人들 現地 座談會.” 4면.
- \_\_\_\_\_, 1969. 1. 7. “韓越 同窓生 키 副統領과 田英祥씨 親善의 架橋.” 4면.
- 『매일신보』, 1940. 11. 18. “日曜 話題 繪畫 가튼 詩의 나라 時代의 脚光에 登場한 “佛印” 金永鍵氏 談.” 2면.
- 『서울신문』, 1946. 5. 7. “佛領인도지나에서 동포 124명이 귀환.”
- 『시대일보』, 1924. 5. 31. “外地 仲介組合創立.” 4면.
- \_\_\_\_\_, 1925. 8. 26. “幼稚園 期成 音樂 講演會.” 3면.
- 『조선일보』, 1925. 4. 14. “大會 參加者)(四回).” 2면.
- \_\_\_\_\_, 1925. 4. 15. “기자 대회 금일 개막.” 2면.
- \_\_\_\_\_, 1925. 5. 27. “外國 간 男便을 생각하다가.” 2면.
- \_\_\_\_\_, 1925. 8. 25. “異域 殊土에서 生長하는 우리 어린이를 教育코자.” 4면.
- \_\_\_\_\_, 1927. 2. 18. “一年間 漂浪 青年 數 義州서만 八十二名.” 2면.
- \_\_\_\_\_, 1936. 5. 30. “一夫多妻의 別世界. 生活權은 女子에. 廿餘 朝鮮 同胞, 大概, 人蔘 行商. 印度支那의 實情談.” 2면.
- \_\_\_\_\_, 1946. 6. 3. “죽어도 조선(朝鮮) 사람.” 2면.
- \_\_\_\_\_, 1950. 5. 11. “□상(商)에는 『별무기대(別無期待)』 全澤珪氏 西貢서 書翰.” 2면.
- 『한민(韓民)』, 1940. 4. 25. “在外韓人已至三百萬.” 제1기 제2호, 37.
- 김상률. 1940. “佛印脫出記.” 『삼천리』 제10호(12월 1일), 116-124.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949. “조병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피의자신문 조서(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梁會英).” 2월 4일.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83&totalCount=83&itemId=an&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16&levelId=an\\_052\\_007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A1%B0%EB%B3%91%EC%83%81&searchKeywordConjunction=AND](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83&totalCount=83&itemId=an&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16&levelId=an_052_007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A1%B0%EB%B3%91%EC%83%81&searchKeywordConjunction=AND)(검색일: 2022. 8. 9.).
- 성완생(成完生, 上海 支局 特派員). 1923a. “南洋行(一) 第一信 汕頭에서.” 『조선일보』 12월 16일, 1면.
- \_\_\_\_\_. 1923b. “南洋行(二) 第一信 汕頭에서.” 『조선일보』 12월 17일, 1면.

- \_\_\_\_\_. 1923c. “南洋行(四) 一九二三, 十一, 二二 아츨 第二信, 香港 埠頭에 ←리면서.” 『조선일보』 12월 19일, 1면.
- \_\_\_\_\_. 1924. “南洋行(八) 第三信 香港에서.” 『조선일보』 1월 10일, 1면.
- 유남성(柳南城, 전 駐越 교민회장). 1986a. “東南亞 血戰場 누빈 40년: 赤化 越南서 교포 보호에 헌신한 柳南城씨 手記.” 『護國』 9월호, 61-66.
- \_\_\_\_\_. 1986b. “東南亞 血戰場 누빈 40년: 赤化 越南서 교포 보호에 헌신한 劉南城씨 手記<中>.” 『護國』 10월호, 116-121.
- 전영상. 2010. 『길 따라 세월 따라: 한평생 살아온 봉사의 삶(Along the Way, Along the Time)』. CREART.
- 정구종(鄭求宗, 東亞日報 社會部 記者). 1975. “르뵘: 釜山 越南 難民收容所.” 『북한』 7월, 218-219.
- 정원국(鄭源國, 南方研究會 會長). 1948. “華僑와 紅蔘.” 『경향신문』 2월 8일, 2면.
- Hồ Chí Minh. 2000. *Hồ Chí Minh Toàn Tập, 4 (1945-1946)*.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Lê Thân) Trần, Trọng Kim. 1969. *Một Cơn Gió Bụi (Kiến Văn Lục)*, Sài Gòn: Nhà Xuất Bản Vĩnh-Sơn.
- 京城鐘路警察署長. 1925. “全朝鮮記者大會ノ件(京鐘警高秘 第2755號).” 발신일: 4월 17일, 수신자: 京城地方法院檢事, 수신일: 4월 18일. 『檢察事務에 關한 記錄 1』. 60-95. [https://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had\\_131\\_0160](https://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had_131_0160)(검색일: 2022. 1. 13.).
- 亞細亞局長. 1924. “鮮人金德炯臺灣へ送り届ケの件(亞三機密 第67號).” 발신일: 11월 3일, 수신자: 三矢(朝鮮總督府 警務局長).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 部 — 在支那各地 3』, 1-18. [https://db.history.go.kr/id/haf\\_071\\_1190](https://db.history.go.kr/id/haf_071_1190)(검색일: 2022. 1. 14.).
- 朝鮮總督府 編. 193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昭和 10年 3月.
- 河東永煥. 1942. “在外 朝鮮人 現地 特報: 佛印の我等の勢力.” 『삼천리』 제14권 제1호(1월 1일), pp. 84-87, 89.
- Le Monde*, 1948. 3. 4. “Un Deuxième Convoi est Attaqué au Sud-Ouest de Saigon Vingt-cinq Morts.”
- Bao Dai (Bảo Đại). 1971. “Emperor Bao Dai: Imperial Proclamation of Vietnamese Independence March 11 1945.” In Allan W. Camenson, ed. *Viet-Nam Crisis: A Documentary History, Volume I (1940-1956)*.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50. "Prospects for the Defense of Indochina against a Chinese Communist Invasion (ORE 50-50)."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7 September), 1-7. <https://www.cia.gov/readingroom/>(검색일: 2022. 9. 1.).
- \_\_\_\_\_. 1953.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Order of battle in North Vietnam." FOIA (2 September). p. 1. <https://www.cia.gov/readingroom/>(검색일: 2022. 9. 2.).
- Devillers, Philippe. 1947. "I. - L'autorité d'Ho Chi Minh et le Vietminh." *Le Monde* (le 7 janvier).

## 논저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5.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재외동포사 총서 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기태. 1999. "韓·越 交流 關係 속에서의 1945年 前後의 베트남 居住 韓國人." 『아시아 지역연구』 통권 제2호(2월), 2-10.
- \_\_\_\_\_. 2002. 『전환기의 베트남』. 조명문화사.
- \_\_\_\_\_. 2011. "전 베트남한인회 전영상 회장에 대한 회고." <http://www.seamission.net/sub04.htm?page=bdview&no=51&startnum=0&rtsrh=&keyword=>(검색일: 2016. 4. 6.)
- 김인덕·김도형. 2008.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지역민족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태우. 2013. 『폭격: 미 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 김현영·구선희·송병권 편. 2005. 『재외동포사 편람』(재외동포사 총서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보민부(Võ Minh Vũ). 2022.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의 베트남 화교정책: 현지 정권을 통한 통제와 협력의 확보 시도." 이정희 외. 『베트남 화교와 한반도화교 마주보기』, 161-194. 고양: 학고방.
- 안병찬. 2005. 『사이공 최후의 표정 컬러로 찍어라』. 커뮤니케이션북스.
- 외교부. 2021.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검색일: 2022. 6. 2.).
-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 윤대영. 2010. 『마주보는 두 역사, 인천과 하이 풍』. 인천문화재단.
- 윤대영·응우옌 반 킴·응우옌 마인 중. 2013. 『1862~1945, 한국과 베트남의 조우: 교류, 소통, 협력의 중층적 면모』. 이매진.
- 이만열. 2005. “간행사.” 김현영·구선희·송병권 편. 『재외동포사 편람』 1-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이석열(李錫烈 特派員). 1966. “코리안의 鼓動 世界로 向하는 韓國·韓國人·韓國商品 (30) 越南(上).” 『동아일보』 9월 10일, 6면.
- 이한우·부이 테 끄영. 2015. 『한국-베트남 관계 20년, 1992~2012: 협력관계의 전개와 발전방향』. 폴리테이아.
- 장호현. 2006. “〈崔陟傳〉의 창작 기반.” 『고전과 해석』 제1집(10월), 149-165.
- 채수홍. 2021. 『베트남: 한인의 베트남 정착과 초국적 삶의 정치』. 놀민.
- 최병욱. 2001. “17세기 제주도민들이 본 호이안과 그 주변.” 『베트남연구』 제2호, 189-205.
- 허경진·김성은. 2011. “표류기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 『淵民學志』 15권, 275-289.
- Ban Tuyên Giáo Trung Ương. 2019. “Kỷ Niệm 130 Năm Ngày Sinh Cụ Nguyễn Văn Tố - Trưởng Ban Thường Trực Quốc Hội (5/6/1889 - 5/6/2019).” [https://thads.moj.gov.vn/quangngai/noidung/tintuc/lists/hoatdongdoanthe/view\\_detail.aspx?itemid=21](https://thads.moj.gov.vn/quangngai/noidung/tintuc/lists/hoatdongdoanthe/view_detail.aspx?itemid=21)(검색일: 2022. 10. 8.).
- Trần, Huy Liệu. 1957. *Cách Mạng Cận Đại Việt Nam: Xã Hội Việt Nam Trong Thời Kỳ Pháp Nhật (1939-1945). Q. 1: Pháp Đầu Hàng Nhật, Nhật - Pháp Bóc Lột Việt Nam*, Hà Nội: Nhà Xuất Bản Văn Sử Địa, 1957.
- TTXVN (Thông Tấn Xã Việt Nam). 2008. “Truy Tặng Các Đồng Chí Hồ Tùng Mậu, Nguyễn Văn Lộc Huân Chương Sao Vàng.” *Tiên Phong* 1월 18일(검색일: 2022. 8. 8.).
- 加納寛. 2019. “東亜同文書院生が見た仏領インドシナの日本人: 1910-1939.” 『文明21』 21, 21-35.
- 巫乐华. 1994. 『华侨史概要』. 北京: 中国华侨出版社.
- 方积根·胡文英, 1989. 『海外华文报刊的历史与现状』. 北京: 新华出版社.
- 武内房司. 2017. “大南公司与戦時期ベトナムの民族運動: 仏領インドシナに生まれたアジア主義企業.” 『東洋文化研究』 19号, 31-72.
- 温广益 外. 2000. 『“二战”后东南亚华侨华人史』. 广州: 中山大学出版社.
- 中野綾子. 2018. “ベトナム社会科学院所蔵・旧フランス極東学院日本語資料調査「河内

- 日本人会会員名簿」について.”『リテラシー史研究』, 11, 21-36.
- 平田豊弘. 2011. “第2章 松下光廣と大南公司.”『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4(磁器流通と西海地域), 115-122.
- Brocheux, Pierre. 2007. *Ho Chi Minh: A Biography* (translated by Claire Duik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i, Diem and David Chanoff. 1999. *In the Jaws of History*, Vietnam War Era Classics Series.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Coram, Robert. 2007. *American Patriot: The Life and Wars Of Colonel Bud Day*. Little, Brown and Company.
- Davidson, Philip. 1988. *Vietnam at War: The History, 1946-1975*. Novato, California: Presidio Press.
- Dommen, Arthur J. 2001. *The Indochinese Experience of the French and the Americans*.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Hammer, Ellen J. 1954. *The Struggle for Indo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rring, George C. and Bernard B. Fall. 2005. *Street Without Joy: The French Debacle In Indochina*. Mechanicsburg, Pennsylvania: Stackpole Books.
- Joes, Anthony James. 2010. *Victorious Insurgencies: Four Rebellions that Shaped Our World*.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Logan, William S. 2000. *Hanoi: Biography of a C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 Nitz, Kiyoko Kurusu. 1983. “Japanese Military Policy towards French Indochina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Road to the “Meigo Sakusen” (9 March 1945).”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4(2) (September), 328-353.
- Schneider, Justin Adam. 2018. “The Business of Empire: The Taiwan Development Corporation and Japanese Imperialism in Taiwan, 1936-1946.” Ph. D. Diss. Harvard University.
- Smith, Ralph B. 1978. “The Japanese Period in Indochina and the Coup of 9 March 1945.”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9(2) (September), 268-301.
- Tucker, Spencer C. 1999. *Vietnam*.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Youn, Dae-yeong. 2016. “Between Korea and Vietnam: Kim Yung Kun’s “Ever-Changing and Impermanent” Life.” *Journal of Asian History* 50(2)

(November), 235-278.

Youn, Dae-yeong. 2018.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Young Korean Men and Nanyang in the 1910s." *Universitas: Monthly Re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 526(March), 27-43.

Zinoman, Peter. 2001. *The Colonial Bastille: A History of Imprisonment in Vietnam, 1862-194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bstract

## Korean Migration to French Indochin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 Case Study of Jeon's Family

Dae-yeong You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can we understand past mig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history?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 of Overseas Koreans in French Indochina and their life and family histories. The Koreans began to populate French Indochin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Jeon's family is the subject of a case study. A crucial part of this case study is focusing on Jeon Yeong-sang's memoirs. Then, I will try to reconstruct his memoirs and interpret his past experiences, taking into account local and regional circumstances. It's more of Jeon's private life. With its focus on life and family histories, the case study of migration can analyze the emergence of new regional connection to French Indochina from Korean Peninsular by way of Manchuria and Hong Kong. This connection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Overseas Koreans felt politically, socioeconomically, and culturally accepted, respected, included, and supported by others in the local situation.

**Keywords** | Vietnam, Indochina, migration, Jeon Seong-hwa, Jeon Yeong-sang